

도민 독감 무료접종 백신물량 '관건'

도, 29만여명분 확보 계획... 접종 대상 70% 수준 '의료계 연구결과 65%만 접종해도 집단면역 형성'

제주도가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무료 접종에 나서면서 막대한 물량의 백신 확보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독감 백신 공급을 받을 제약 도매상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제주도는 제약 도매상을 상대로 앞으로 백신 수급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 놓여 차질이 발생해도 제주도과 계약한 백신물량은 반드시 공급한다는 내용의 약약을 받을 예정이다.

제주지역의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사업은 시행 주체와 연령대에 따라 두갈래로 나뉘어 진행된다.

생후 6개월에서 만 18세까지 이르는 영유아와 청소년, 만 62세 이상

노인은 국가 주도로 무료 접종하고, 나머지 만 19세부터 만 61세까지는 제주도가 맡는다.

제주도는 겨울을 앞두고 증상이 비슷한 코로나 19와 독감이 동시 유행해 혼선이 생기는 것을 막고자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만 19세~만 61세 도민까지 접종 대상에 포함시켰다.

인원별로는 26만7000여명이 국가를 통해, 나머지 42만8000여명은 제주도 자체 사업을 통해 독감 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확보하려는 백신 물량은 접종 대상의 70% 수준인 29만6000여명분에 그친다. 제주도는 계획한 백신 물량이 접종 대상보다 적은 이유로 '집단 면

역'(Herd immunity)을 꼽았다.

도 관계자는 "전체 인원의 65%가 백신 접종을 마치면 집단 면역이 형성돼 나중에 감염병이 유행해도 대규모 전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의료계의 연구결과"라며 "우리는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 백신 확보 물량을 접종 대상의 70%로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백신 접종을 신청하지 않는 도민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예상과 달리 백신 접종 신청 인원이 확보한 물량보다 더 많아 탈락자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선 "그때는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백신 물량을 추가 확보할 것"이라며 "백신 접종 사업에서 탈락자가 생기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문제는 국가 백신 접종 사업이다. 정부는 백신 공급처가 한정적인 상황에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접종

대상을 늘리면 국가가 확보할 수 있는 백신 물량은 그만큼 줄어들며 제주를 포함한 전국 시도에 자체 무료 접종 사업을 자제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다. 제주도가 국가 공급을 요청한 백신 물량은 약 24만명 분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백신 공급 물량을 갑자기 늘리기 힘든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감염시 합병증 우려가 높은 고위험군이 우선 접종해야 한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면서 "단 제주도를 비롯한 지자체가 접종 대상을 늘린다고 해서 국가 배정분을 (해당 지자체에) 후순위로 공급한다거나 불이익을 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 백신 접종 사업은 연령 대별로 이달 8일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제주도 자체 접종 사업은 다음달 13일부터 시작한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분주한 서부보건소 선별진료소 제주에서 가족 3명이 동시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15일 서귀포시 대정읍 서부보건소 선별진료소 직원들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검체 채취를 하기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4명 퇴원

15일 하루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퇴원했다. 이에 도내서 입원치료 중인 확진자는 11명으로 줄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제주 30·31·36·38번 코로나19 확진자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해 퇴원했다고 밝혔다.

제주 30번 확진자 A씨와 31번 확진자 B씨는 가족이다.

게스트하우스 방문 이력이 있는 제주 36·38번 확진자도 퇴원했다.

제주 36번 확진자 C씨와 제주 38번 확진자 D씨는 지난달 말 확진 판정 이후 서귀포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이태윤기자

제주 일가족 3명 코로나19 확진 판정

지난 5-9일 수도권 방문... 도, 접촉자 25명 확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4일 오후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가족 3명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제주 54번 확진자 A씨와 55번·56번 확진자는 가족이다.

55번·56번 확진자는 A씨의 자녀

등 총 25명이며 이중 24명은 격리조치가 완료됐다.

54번 확진자 A씨의 접촉자로 분류된 가족 4명은 다른 지역에 거주함에 따라 해당 시·도로 이관했다. 자택 근처에서 대화를 나누었던 지인 1명만 제주에서 격리조치 중인데 15일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최종 음성으로 확인됐다.

A씨와 자녀 2명이 방문한 장소는 자택 외에 김포발 제주행 에어서울 RS937편, 대정농협 하나로마트(대

정읍), 우리들마트(대정읍), 강문보내과(대정읍) 등 4곳이며, 추가 확인된 동선은 없는 상태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와 자녀 2명은 15일 제주대학교병원 입원병상으로 이송돼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

도 방역당국은 CCTV와 A씨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분석 등을 통해 추가 방문지와 접촉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찬반 격론

제주인권위·전교조 등 "인간적인 교육방식 필요해"

제주교육학부모 연대 "정치적 목적으로 학생 이용"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의 제주도의회 심사를 앞두고 찬·반 의견이 극명히 갈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인권위원회는 "교육현장의 인권옹호자로서 교사와 학부모는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마땅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제주 인권체제의 한 축으로서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간의 존엄성을 중심에 놓고 교육의 주체들이 인간적으로 만나고, 인간적인 교육방식을 통해 보다 인간적인 세상을 구현할 수 있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더이상 늦춰져서는 안될 것"이라며 "9월 회기에 상

정되는 조례를 검토, 보다 완성된 인권조례의 위상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도의회에 요구했다.

같은날 전교조 제주지부와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학생인권조례TF, 참교육제주학부모회 등으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도 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반면 제주교육학부모연대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생인권조례안을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학생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어른들이 절대 해서는 안된다"며 "학생인권조례의 핵심은 인권단체들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선생님을 고발하기 쉽게 만드는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의 갈등이 없을 수 있느냐"면서 "온라인 수업도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시점에 인권단체의 선동질로 학생들이 더이상 희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여자친구 가학적 성폭행 30대 징역 16년

재판부 "죄질 매우 안좋아"

성범죄 전력으로 전과발제를 찬 3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흉기와 둔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34)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15년간 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고씨는 지난 3월 26일 제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21)에게 성매매와 음란행위를 시킨데 이어, 이튿날에는 둔기와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 여성은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또 고씨는 피해자가 헤이질 것을 요구하자 음란행위 영상을 지인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뿐더러 피고인은 이전 성범죄로 전과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상민기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 거래 계약서 작성 여부 등

제주시는 동부지역에 소재한 부동산 중개업소 639곳을 대상으로 오는 11월말까지 지도·점검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거래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실명서 작성 여부 ▷자격증 대여와 무등록 중개 행위

여부 ▷요율표 게시, 인터넷 허위광고 여부 등이다.

제주시는 앞서 서부지역의 673곳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 10곳을 적발해 6곳은 업무정지, 1곳은 과태료, 3곳은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중개업소를 통한 부동산 거래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황금향 ◎레드향 ◎천혜향 (1, 3년생)

- 유라실생
- 하례조생
- 원터프린스
- 미니향
- 레몬
- 탐라향 5년생(회분)
- 궁천변이지
- 천전가와대 온주(천지향 8년생)
- 일남일호

※ 신품종 다수보유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귤묘목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득이 월등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거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 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앞길이 창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인데,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알티 등 일본격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매확인서 발급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많은 문의 바랍니다. 단, 일본의 보호신청 이후에 생산한 1.2년생 묘목을 판매하거나 구입 시는, 바로 법에 걸려진.

| | | | |
|----------|-----------|----------|-----------|
| ·카라향 | 1.4년생 | ·궁천변이 | 1.2년생 |
| ·유라실생 | 2.3.4년생 | ·고립조생 | 3년생 |
| ·유라조생 | 1년생 | ·하례조생 | 2.3년생 |
| ·레드향(무독) | 1.2.3년생 | ·한라봉 | 5.6년생 |
| ·천혜향(무독) | 2.3.4년생 | ·하귤 | 2.3.7.8년생 |
| ·궁천 | 1.2.3.5년생 | -그외 다수품종 | |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실육묘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제18-2003-20-08

010-2699-2355

농업인이자면 이 광고를 보셔야합니다

- 감귤·만감 하우스 농가** ※일조가모자랄때:광합성 작용을 위해 하우스 천정으로 살포 =해피한그린 1병(50말)을 일주일 간격 2회→당 상승과 연관이 있으므로 꼭 살포할것
- 키위농가** ※건물중을 높이기 위해 하이휴믹(천연가리)관주:1000평에 500g을 100말에 희석하여 한달간격 2회
- 양배추·양파·브로콜리 농가** ※육묘 키울때: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예방을 위해 V패스(500ml) 12.5말로 2~3회 살포
※정식할때: V패스를 조루로 충분히 관주후 파종
- 마늘농가** ※마늘종자소독: 파종 하루전 키토산(2L)25말로 희석하여 침지하거나 조루로 충분히 묻혀 관주후 다음날 파종 = 종자를 막형성시켜 세균이 침범하지 않으며 뿌리가 나오면 미생물 먹이가 되어 발아가 균일하게됨
- 감자농가** ※더닝이병과시들은병예방을위해 토양소독: V패스(2L)+썰파고(8L)를 50말에 희석 500평 관주후 경운

제품소개

- 해피한그린 : 희토류가 들어있어 엽록소 함량 증가로 광합성 능력을 회복
- 하이 휴믹 : 부식산에서 추출한 고농축 천연가리
- V 패스 : 희토류와 양자에너지로 합성된 세균성 바이러스 예방제
- 썰 파 고 : 나노유황과 콜라겐으로 만든 균 예방제

(주)포트라 제주지사 곶탕이감귤유통상사
제주지사장 부 영 인 H·P 010-2633-5349